

건축학도에게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주다, 렌조 피아노 월드 투어

김예름
피렌체대학원 지속가능한 관광 디자인 석사과정

건축가 렌조 피아노

렌조 피아노(Renzo Piano)는 1937년 제노바에서 태어난 이탈리아 건축가이다. 프랑스 파리의 풍피두센터(The Centre Pompidou), 런던의 더 샤드(The Shard), 뉴욕의 휘트니 뮤지엄(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이스탄불 현대 미술관(Istanbul Museum of Modern Art) 등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건축물을 설계하였다. 2015년 서울 광화문의 KT 사옥을 설계하여 국내에서도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RPBW(Renzo Piano Building Workshop)라는 이름의 스튜디오를 제노바와 파리에서 운영 중이며, 2008년에는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 재능 있는 건축가를 발굴하기 위한 비영리단체 렌조 피아노 재단(Fondazione Renzo Piano)을 설립하였다.

렌조 피아노 월드 투어의 시작과 선발 과정

렌조 피아노는 30대 초반에 파리 풍피두센터 설계 경쟁에서 우승하며 화려하게 건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전 세계를 돌며 건축 프로젝트와 개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설명할 때마다 여행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

건축가를 꿈꾸는 젊은 학생들에게 여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는 2017년부터 건축학도들이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였다.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의 건축



렌조 피아노 월드 투어

출처: 렌조 피아노 재단 홈페이지. <https://www.fondazionerenzopiano.org/en/trip/?mode=box>

대학과 재단의 협업을 통해 건축학도들에게 40일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세계적인 명소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는 렌조 피아노 월드 투어 프로그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월드 투어 참여자를 선발하는 데는 무엇보다 '능력주의'를 우선한다. 투어 참여자로 선정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가로서의 재능과 능력이다. 포트폴리오와 이력서의 비중이 70%를 차지하며, 렌조 피아노 재단의 건축 전문가들이 이를 심사한다.

나머지 30%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마음이다. 즉 세상과 소통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물을 보고 창의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재능-글, 디자인, 사진 등-을 평가한다. 건축뿐만 아니라 예술과 공학 등 다양한 관점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2023년 월드 투어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국적의 건축학도 4인이 참여자로 뽑혔다.*

2023 월드투어

올해로 다섯 번째 에디션을 맞은 2023 렌조 피아노 월드 투어를 통해 4명의 건축학도는 40일 동안 6개국 25개 도시를 방문하여 30여 개의 건축물을 경험하였다. 6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렌조 피아노의 작품과 함께 세계적인 건축 작품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파리, 제네바, 베른, 바젤, 룩상, 취리히, 오슬로, 아테네, 빌바오, 산탄데르, 뉴욕, 샌디에이고, 보스턴, 시카고, 델러스,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카르멜, 로스앤젤레스를 지나 렌조 피아노 재단이 위치한 이

* 프랑스 파리의 대학원생 안토니오 제이거(Antorino Geiger, ENSAPM-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chitecture Paris-Malaquais), 로마 사피엔자 대학원의 키아라 마르베타(Chiara Barbeta, Sapienza Università di Roma), 노르웨이 오슬로 건축 디자인 대학의 위크슈 지도자 마리아 슈로이더(Maria Schroeder, Oslo School of Architecture and Design), 스페인 마드리드 공과대학 대학원생 알바로 로메로 산초(Alvaro Romero Sancho, Universidad Politecnica de Madrid)



파테 팔라스

출처: RPBW 홈페이지. <http://www.rpbw.com/project/pathe-palace>

탈리아의 제노바에 도착하는 여정이었다. 방문하는 건축물은 박물관, 도서관, 공항, 기차역, 비즈니스센터, 개인 건물, 과학시설물, 공연장 등 다양하였다.

2023 월드 투어는 프랑스 파리에에서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파리에 위치한 렌조 피아노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그와 첫 만남을 가졌다. 렌조 피아노는 다 이내믹한 여정을 막 시작하는 참가자들에게 디테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건물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완성된 건물이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관점에서의 디테일을 보는 능력을 투어 기간 중에 키울 것을 참가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1977년 완공되어 올해 46주년을 맞이한 폰피두센터에 이어 파리의 전통 극장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파테 팔라스(Palace Pathé)를 방문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렌조 피아노 팀이 현재 작업 중이며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개관식을 열 계획인데, 파리 전통 극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복합상업시설



오슬로 시립 도서관
출처: shutterstock



로비 하우스
출처: shutterstock

로의 변신이 기대되는 장소이다.

스위스 로잔으로 이동한 건축학도들은 보다 예술적인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 롤렉스 센터(Rolex Centre)와 바로치 베이가(Barozzi Veiga)의 작품이 자 세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는 로잔 주립 미술관(Musée cantonal des Beaux-Arts Lausanne)을 방문하였다.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의 작은 마을 룡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꼽히는 룡상 성당에 들렀다. 1955년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설계한 이 성당은 조용한 시골마을의 수도원 역할을 하는 소박한 곳이지만, 건축가들 사이에서 꼭 한 번 들러야 할 성당으로 알려져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월드 투어 9일째가 되는 날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하여 오페라 하우스, 몽크 박물관, 노르웨이 국립 중앙박물관에 이어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서관으로 꼽히는 오슬로 시립 도서관(Deichman Bjørvika)을 방문하였는데, 이들은 유럽 건축의 세련된 모던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들로 꼽힌다. 건축물이 마치 돛대를 달고 항해하는 듯한 모습으로 건축학도들에게 영감을 주는 오슬로 현대미술관(Astrup Fearnley Museum)은 건축학도들에게 큰 미적 울림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유럽의 마지막 여행지 스페인에서는 꼭 방문해야 할 건축물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찾았다. 산탄데르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책을 예술과 건축의 관점에서 모색하는 보틴 재단(Fondacion Botín)을 방문하여 건축학도로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였다.

유럽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한 건축학도들은 미주 첫 투어를 뉴욕에서 시작하였다. ‘건축가들의 성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뉴욕에서 5일 동안 유명 건축물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다. 산티아고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의 오쿨러스(OCULUS), 스노헤타(Snøhetta)의 뉴욕 911 메모리얼 박물관(9/11 Memorial Museum Pavilion), 데이비드 차일드(Davide Childs)의 세계무역센터 프리덤 타워(WTC Freedom Tower), 언스튜디오(Unstudio)의 뉴 암스테르담 파빌리온(New Amsterdam Pavilion),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비크만타워(Beekman Tower) 등 저명한 건축가들과 스튜디오의 작품들을 한 도시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건축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며 컬럼비아 대학교의 현대적인 캠퍼스, 구겐하임 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모건 도서관 등을 둘러보았다. 뉴욕

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뉴헤븐에서는 독특한 천장 설계로 유명한 루이스 칸(Louis Kahn)의 예일 아트 갤러리(Yale Art Gallery)를 방문하였다.

시카고로 향한 네 사람은 시카고의 역사적인 건축물이자 전설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가 1910년대에 설계한 가정집인 로비 하우스(Robie House)를 본다는 사실에 무척 들떴다고 한다. 서로 스타일이 다른 건축학도들이지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서 받은 영향을 표현하는 데는 다들 무척 열정적이었다.

한편 루이스 칸이 설계한 유럽 및 아시아 문화를 다룬 김벨 아트 뮤지엄(Kimbell Art Museum)은 2013년 렌조 피아노 팀이 확장 설계 작업을 하였다. 고대와 현대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로 설계된 이 뮤지엄은 자연광을 잘 활용한 것으로 유명한데, 렌조 피아노는 이 부분을 젊은 건축학도들이 꼭 직접 보고 경험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건축물을 리스트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미국에서의 마지막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참여자들은 두 도시 사이의 드라이브 여정이 흥미로웠다고 전하였다. 미국 서부 해안 도시의 건물이 뛰어난 미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생전에 설계한 서부 해안의 가정집들이 영감 그 자체였다고 표현하였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브로드 뮤지엄과 게티 뮤지엄 방문을 끝으로 미국에서의 월드 여정을 무사히 마쳤다.

새로운 발견에서 시작될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유럽과 미국에서 40일 동안 건축 월드 투어를 마친 네 명은 이탈리아 제노바로 돌아와 렌조 피아노의 스튜디오에서 공식적인 클로징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투어 기간 중 사진과 글, 디자인 등으로 자신들

의 배움을 렌조 피아노 월드 투어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rpwt_40days)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였다. 이후에는 렌조 피아노 재단과 함께 월드 투어에 관한 매거진 형식의 책을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여행은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 여행을 시작하면 원래 찾으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행은 마치 대형 도서관에 가는 것과 비슷하다. 특정한 책을 찾으려고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더 좋은 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여행을 통해 건축가로서 원래 찾으려고 했던 것 이상의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렌조 피아노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건축물을 직접 보는 여행의 경험이 탁월한 건축가로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미래의 재목에게 풍부한 자양분을 제공하기 위한 건축대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 1 <https://www.fondazionerenzopiano.org/en/trip/?mode=box>
- 2 <https://www.professionearchitetto.it/news/notizie/30930/Renzo-Piano-World-Tour-2023-destinazione-Europa>
- 3 <https://www.professionearchitetto.it/news/notizie/30976/Renzo-Piano-World-Tour-2023-alla-scoperta-dell-America>
- 4 <https://www.professionearchitetto.it/news/notizie/30873/Renzo-Piano-World-Tour-2023-le-grandi-rotte-dell-architettura-contemporanea-in-40-giorni>
- 5 <https://www.professionearchitetto.it/news/notizie/31002/Renzo-Piano-World-Tour-2023-II-gran-finale-del-Grand-Tour>